

# “세월호 엄마… 울다 멈췄다 또 울며 찍었죠”

## 영화 '생일' 전도연

“두 번이나 출연을 거절했어요.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부담과 '밀양'의 신예가 생각나서 고사했죠.”

25일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전도연(46)은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는 다음 달 3일 개봉하는 영화 '생일' (이종언 감독)에서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순남 역을 맡았다. '밀양' (2007)의 신예에 이어 또다시 자식을 먼저 앞세운 엄마 역할을 한다.

“‘밀양’ 이후 아들을 잃은 엄마 역은 안 하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생일’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을 응원하고 힘이 돼주는 이야기라서 결국 선택했습니다.”

“생일’에서 순남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 건조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아무리 억눌러도 슬픔은 일상을 불쑥불쑥 헤집고 올라오는 법. 세탁기를 돌릴 때, 어린 딸이 반찬 투정을 할 때, 옷걸이에 걸린 교복을 바라볼 때, 한밤중에 현관 형광등이 저절로 깜박일 때 슬픔은 가슴을 후벼판다. 전도연은 “순남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혼 없이 떠도는 유령처럼 보았다”고 했다.

“‘밀양’ 때는 결혼을 안 했기에 신예를 이해하려고 온몸을 불살랐다면, ‘생일’을 찍을 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아이 엄마이다 보니 아들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느끼는 감정과 순남이 느끼는 감정을 분명히 구분하려고 했죠.”

독보적인 연기력을 지닌 그이지만, 쉽지 않은 역할이었다. 감정적 소모가 체력적 소모로 이어지면서 촬영이 끝나고 밤에 잘 때는 ‘공공’ 앓았다고 했다. “순남의 일상을 연기할 때는 어려웠고, 감정이 터져 나올 때는 무섭기까지 했어요.” 전도연은 “슬프다고 해서 슬퍼지는 것

## “엄마 돼보니 더 감정이입 한발 물러서서 연기 촬영 마친 뒤 팽팽함 다녀와”

도 아니고, 감정이 저절로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그래서 그냥 부축하면 부족한 대로, 제가 느끼는 만큼만 연기하자는 심정으로 카메라 앞에 던지듯이 연기했다”고 되짚었다.

극 중 차곡차곡 응집된 감정은 후반부 아들의 생일모임 때 폭발한다. 순남은 남편의 설득으로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생일 축하파티를 연다. 다 같이 아들 사진을 보며 저마다 추억을 회상한 뒤 흐느낀다. 약 30분 분량으로, 50여명의 출연진이 한데 모여 이를 동안 통테이크로 찍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멈췄다가 또 울고… 다들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슬픔과 힘을 나누는 파리인데, 실제로 촬영하면서 누군가 슬퍼할 때 옆에 있어 주고 도닥여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죠.”

전도연은 촬영을 모두 마친 뒤에는 팽팽함에도 다녀왔다. “그곳이 빛바래져 기억의 저편으로 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통해 기억을 되살리는데 한몫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영화는 추모와 위로에 방점을 찍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관객들은 다가가기 쉽지 않을 듯하다. 전도연 역시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고단한 워킹맘인 제 친구가 시사회 때 영화를 본 뒤 문자를 보내왔어요. 매일 힘들다고 투정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도 잘 못 챙겼는데, 이 영화를 본 뒤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영



화를 보는 관객들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전도연은 영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2001) 이후 18년 만에 설경구와 한 작품에서 재회했다. 네티즌들은 둘을 ‘전설 커플’로 부른다. “설경구씨는 친정 오빠 같아요. 18년 전에는 맛있는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서 더 맛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호호” 1990년 CF로 데뷔해 TV 드라마에서 활약했던 전도연은 1997년 ‘접속’으로 스크린에 진출한 뒤 20여년간 여러 작품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밀양’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연습뉴스

# 쏟아지는 1인방송 결합 예능 성과는 ‘글썸’ 온라인 방송과 차별화 못해 시청률 낙제점

연예인보다 크리에이터가 아이들의 대상이 된 시대, 방송가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1인방송을 소재로 한 신규 예능들을 내놓는다. JTBC ‘랜선라이프’부터 SBS TV ‘가로채널’, tvN ‘내 손안에 조카티비’, 돌아온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까지 TV로 건너온 1인방송 예능이 하나의 장르가 된 모양새다.



SBS TV '가로채널'

SBS플러스 역시 다음 달 중 ‘렌트채널, 남은 부재중’을 새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지상열, 김희철 등 연예인이 게스트, 슈기 등 인기 크리에이터의 방송 채널을 하루 동안 빌려 자신만의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다.

이렇듯 비슷한 포맷의 예능이 봇물처럼 쏟아지지만 단숨에 1인 방송 포맷을 TV로 옮겨왔다고 흥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신함이 없고 단조롭다는 혹평 속에 낮은 시청률을 땀낸다.

‘랜선라이프’는 1%대(닐슨코리아, 비지상파는 유료가구) 시청률에서 머물며,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가로채널’도 마찬가지로

다. ‘내 손안에 조카티비’는 지난 2~3월 방송 당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청률을 보였다.

크리에이터계 1인자인 대도시권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과 1인 미디어 결합은 앞으로도 있을 현상이지만 방법 면에서는 과도기라 아직은 1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방송사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1인 방송 원조 격으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가 오는 29일 귀환을 예고한 가운데 체면을 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소녀시대 태연 ‘사계’, 8개 차트 1위 싹쓸이

소녀시대 태연(30·사진)의 신곡 ‘사계’ (Four Seasons)가 음원차트 정상에 석권했다.



성으로 된 얼터너티브 팝으로, 사랑의 심리를 사계절 변화에 맞춰 표현한 가사와 태연의 감성 보컬이 어우러졌다. 이번 싱글에는 ‘사계’와 ‘블루’ (Blue) 등 2곡이 수록됐다. 태연은 지난 23~24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서양코르 콘서트 ‘아포스트로피 에스…원 태연 콘서트’ (‘s-one TAEYEON CONCERT’)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6시 공개된 태연의 싱글 음반 타이틀곡 ‘사계’는 25일 오전 멜론, 지니뮤직, 올레뮤직, 엠넷뮤직, 플로, 벅스, 소리바다, 바이브 등 8개 차트 1위에 올랐다.

앞서 선두를 다투던 ‘음원 강자’ 장범준의 신곡 ‘당신과는 천천히’와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를 제쳤다. 두 곡은 각각 지난 21일과 18일 공개된 바 있다. ‘사계’는 어쿠스틱 기타 중심의 약기 구

##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국회의원사정문화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10 좋은 아침
[10]	00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국회의원사정문화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11]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다크 나이스...산스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톡 보험설계(재)
[1]	00 3.1운동 100주년 특집 명예의 그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 55 뽀뽀보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45 MBC 뉴스데스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순정이 아내	45 MBC스포츠 KEB 해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 : 콜롬비아)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덕화티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문양목>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스포터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재동 40 특집 다크 태권도 평화를 향한 여정	10 입맞춤	10 수목미니시리즈 더 뱅커 프롤로그	10 볼타는 청춘 1~2부
[12]	35 KBS 뉴스 45 KBS 결자 다큐멘터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07:00 너티니츠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7:30 고고디노 공룡탐험대	13: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8:00 당동당 유치원1~2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탐험 구조대
09:00 뽀뽀뽀 뽀뽀로	15:45 몬카트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6:15 짝과 팡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0:30 한국기행	16:45 당동당 유치원1~2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해물 순두부찌개와 콩나물무침>	17:15 마사와 곰
	17:30 로보카 폴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6일 (음 2월 20일 壬戌)

<p><b>子</b> 36년생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48년생 벗어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게 된다. 60년생 수용하는 것이 백 번 낫다. 72년생 겉과 속이 꼭 한 모습이니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84년생 현혹은 허황된 것이니 빨리 접을수록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58, 95</p>	<p><b>午</b> 42년생 강력히 추진하라. 54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66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 역시 다 알고 있느니라. 78년생 기본적인 것이 누락되어 애를 먹겠다. 90년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임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59</p>
<p><b>丑</b> 37년생 뱀방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강하다. 49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61년생 당해 사람은 본격적으로 진행 된다. 73년생 확실하게 펼쳐야 할 도량이다. 85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능률적인 시국으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41, 80</p>	<p><b>未</b> 43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년생 지난날에 쌓았던 공이 빛을 보게 되리라. 67년생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드는 법이 아니라. 79년생 전문가나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91년생 나가기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50</p>
<p><b>寅</b> 38년생 집중할 필요가 있다. 50년생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이가 생긴다. 62년생 힘들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의 선회나 포기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74년생 확실하게 수용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86년생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94, 12</p>	<p><b>申</b> 44년생 포기할 필요는 없다. 56년생 입장의 차이를 벗어놓고 흥금을 털어 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68년생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뜻에 걸려드는 폐해가 따를 것이다. 80년생 상호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92년생 현재 당면한 일부터 먼저 처리함이 맞다. 행운의 숫자 : 23, 10</p>
<p><b>卯</b> 39년생 순발력이 절실할 요구되는 상황이 펼쳐지리라. 51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유지할 수 있다. 63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 부작용을 줄인다. 75년생 확실하게 대처한다. 87년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런 대로 성과는 거두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4, 08</p>	<p><b>酉</b> 45년생 굳은 각오로 임한다면 흥성도 사라진다. 57년생 구분을 해두어야 한다. 69년생 해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판세이 아니라. 81년생 흐리터분한 데가 없이 셈이 밝고 명확해야만 한다. 93년생 본인은 정작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1, 94</p>
<p><b>辰</b> 40년생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가 아니 되겠다. 52년생 자기 확신이 절실한 때이니라. 64년생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76년생 고찰이 선행되어야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 88년생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길조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0, 67</p>	<p><b>戌</b> 34년생 중차대한 일에 직면하게 되리라. 46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58년생 육식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70년생 객관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할 때다. 82년생 식상함이 지나치다면 폐단을 머금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7, 62</p>
<p><b>巳</b> 41년생 폭 넓은 시야가 발전적인 단계로 이끈다. 53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다. 65년생 분명히 옳으니 잊지 말아야 한다. 77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89년생 준비해둔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액땀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45</p>	<p><b>亥</b> 35년생 과정은 힘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익이 따른다. 47년생 발전에 이르게 된다. 59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71년생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슬모가 없을 것이다. 83년생 변경시각인상 대로부터의 희곡을 살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4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